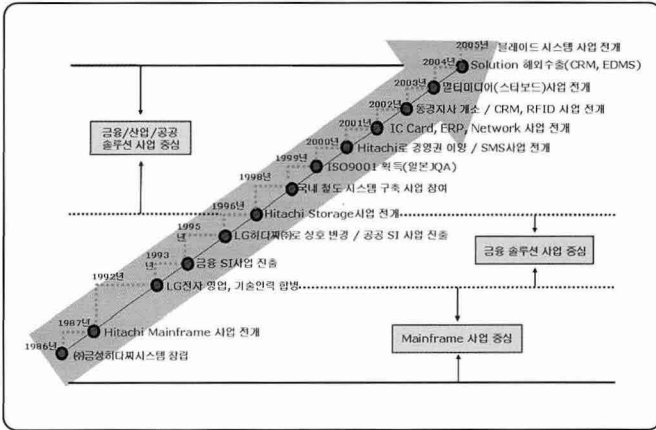




# SI · 플랫폼 이어 유비쿼터스로 영역확장



▶LG히다찌 주요연혁

위낙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이어서 LG히다찌를 한 마디로 표현하긴 곤란하다. 그래도 중심 영역은 존재하기 마련. 이 회사는 현재까지 SI 및 플랫폼 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다.

## SI 사업

LG히다찌는 금융·산업·공공 분야에 걸쳐 SI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의 경우 우수한 금융 솔루션과 풍부한 경험, 전문 컨설턴트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금융 시스템 성공 사례를 확보한 바 있다. LG히다찌 역시 이 부분을 자사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풍부한 경험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한 눈에 꿰뚫어보는 '혜안'과 결부돼 있어 고객들의 신뢰마저 확보한 회사가 LG히다찌이다.

회사 관계자는 “컨설팅부터 시스템 구축, 운영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고객의 어떠한 요구에도 대응할 준비가 된 곳이 LG

히다찌”라고 설명했다.

산업의 경우, LG히다찌는 제조·유통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 걸쳐 경영진단·정보시스템 컨설팅·개발·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제공 중이다.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현하여 고객사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 부분에서 LG히다찌는 철도·산업기반·SOC 등의 공공시설과 행정·환경·안전·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 정보화를 위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플랫폼 사업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 LG히다찌는 스토리지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최근 서버 사업도 다시 재개했다.

스토리지 부분은 데이터의 고급화 및 다양화(멀티미디어 환경), 지식/정보의 중요성 대두로(E-mail, KM, EDMS, CRM, ERP, Digital Library, DW, etc.) 기업의 데이터 수요가 급증, 단순 주변 기기에서 핵심 전산 장비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와 자료 관리를 위해 LG히다찌는 그 어떤 영역보다 스토리지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LG히다찌는 세계 스토리지 시장 최고 점유율을 자랑하는 HDS(Hitachi Data Systems) 디스트리뷰터 계약 체결로 HDS 스토리지 제품을 직접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스토리지 분야에서 LG히다찌는 AOS(Applica-

LG히다찌(대표 이기동 www.lghitachi.co.kr)는 86년 히다찌 지분 51%와 LG지분 49%가 모여 세워진 글로벌 기업이다. 초기 금성히다찌시스템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95년 LG히다찌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이 회사는 SI사업을 비롯해 플랫폼 사업, 해외사업, 유비쿼터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글 | 김중을 기자(아이티타임스)

tion Optimized Storage)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AOS 전략은 고객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스토리지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LG히다찌는 시장 선도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시장 확대로 떠오른 컴플라이언스(규제 대응) 솔루션 관련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에서 주목할 분야는 서버이다. 최근 LG히다찌는 블레이드 서버인 블레이드 심포니를 출시해 서버 사업을 재개했다. 최대 8개의 인텔 아이테니엄 프로세서를 탑재한 블레이드 심포니를 내세워 기간제 시스템 통합수요를 개척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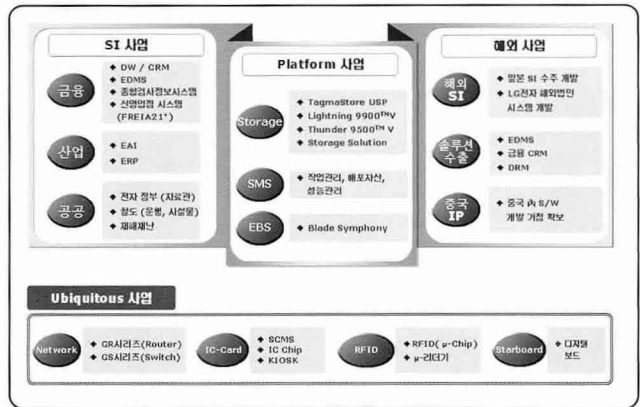
### 해외사업

해외 사업도 LG히다찌를 설명하는 데서 제외시킬 수 없다. 해외SI, 솔루션 수출 및 중국IP 등이 이 회사의 대표적인 해외사업이다.

해외 SI의 경우,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내 여러 협력사와 일본 내 협력사들과 함께 금융·철도·통신 분야 프로젝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솔루션 수출은 일본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효율적인 일본 영업망을 이용하여 일본에 최고의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의 성공적인 구축 경험을 글로벌에서도 실현하고자 함이다.

중국IP 사업은 중국 내 개발 협력업체를 발굴하여 해외SI사업을 위한 S/W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SI사업과의 연계는 물론 국내 우수 솔루션의 대중국 수출 창구로 키워나가



▶LG히다찌 주요사업영역

고 있다.

### 유비쿼터스 사업

이 사업 분야는 최근 LG히다찌가 공을 들이는 대표적인 곳이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이다. RFID, IC-카드, 스타보드 등이 주요 사업영역이다.

세계 최소형, 세계 최저가이면서도 가장 넓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RFID 솔루션인 뮤칩으로 LG히다찌는 RFID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뮤칩이 유비쿼터스 실현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LG히다찌는 이 칩이 물류·유통·자산관리 등에 사용된다고 전했다.

IC-카드의 경우, LG히다찌는 MULTOS/자바카드를 탑재한 칩을 이용하여 의료·교통·사원증·금융·보안 분야에 걸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스타보드는 기존의 프리젠테이션과 화상회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최상의 비지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최첨단 디지털보드이다. **K**



# 유비쿼터스 서비스 업체로 우뚝



SK C&C의 주력 사업은 컨설팅. 이 회사는 SK그룹 고객사를 상대로 비즈니스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아우르고 있다. SK C&C는 고객의 경영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에서 ERP/DW/EAI와 같은 기업 핵심 시스템 설계에 이르기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 C&C는 또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의 기업용 솔루션과 전문 컨설턴트들을 보유, 이를 활용해 고객의 업무환경 및 조직 환경에 따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은 물론 기존 시스템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솔루션의 구성·고객화·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SK C&C는 지난 1998년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IT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선진 SLA 적용

과 자산/구매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 토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국내 일류 수준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인 IT 아웃소싱 전문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로 SLA 개념을 도입한 이후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IT 전 영역에 대한 SLA를 적용,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최대규모의 최신 설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 C&C는 대덕데이터센터와CC(command & control center) 네트워크 운영센터를 연계해 1년 365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사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통합고객지원 센터를 통해 IT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한 SPOC(Single Point Of Contact)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한편 SK C&C는 통신/미디어, 에너지/화학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비즈니스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계최초 CDMA 상용화, 위성 DMB와 DMC, CRM과 CIM, DW 등 고객의 성공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공과 금융분야에서도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도시정보시스템(UIS), 지능형교통망시스템(ITS), 국가안전관리, 차세대금융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EDW·BPR·BCP 등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지난 1991년 4월 설립된 SK C&C(대표 윤석경 www.skcc.com)는 IT컨설팅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및 미래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에 이르기까지 IT와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SK그룹 고객사에 대한 성공적인 IT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에서 솔루션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8년,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IT 아웃소싱 제공을 계기로 선진 서비스 수준 협약적용과 자산/구매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 | 임일곤 기자(아이티타임즈)

대규모 IT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K C&C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할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SK C&C는 신규 사업의 방향성을 '디지털 컨버전스'와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전략적 방향에 따라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위성DMB 등을 탑재하고 새롭게 출시한 PMP 등 단말분야와 함께 애니메이션, 게임 퍼블리싱 등 콘텐츠 분야까지 디지털 컨버전스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SK C&C는 얼마 전 PMP 사업에 진출, 향후 급성장이 예고되는 무선 통신 시장에 자사 역량을 집중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PMP 최초이자 유일하게 위성 DMB가 지원되는 '씨앤씨(C&C)'는 내비게이션, SK 텔레콤의 펠론 등을 지원하는 등 통신 기능만 없을 뿐이지, 현재 휴대전화로 구현되는 기능 상당 부분이 제공된다. SK C&C는 그 동안 축적한 통신 및 애플리케이션 기술개발 역량을 발휘 PMP를 HSDPA 등 새로운 통신 및 솔루션과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 C&C는 U-Biz 연구소를 설립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업체들과의 공동개발 및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반 기술이 될 위치추적기술 확보를 위해 GPS와 LBS 구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SK C&C, ISO27001 인증 획득**

SK C&C대표 윤석경 www.skcc.com)는 5월 3일, BSI(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27001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SK C&C가 획득한 이번 인증은 국내 최대 규모의 대덕데이터센터와 본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프라, 인력 관리는 물론 사이버 침입 대응 등의 정보보호 사고 관리와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실패 혹은 재난으로부터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연속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SI와 아웃소싱 사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SI와 아웃소싱 사업의 전 분야에 걸쳐 ISO27001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국내 IT업계에서는 SK C&C가 처음이다. 정재현 SK C&C 전무(왼쪽)가 천정기 BSI 코리아 사장으로 부터 ISO27001 인증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있다. 아울러 RFID 분야와 위성 DMB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SK C&C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사업수행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토탈 IT 서비스 제공업체'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